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관찰 보고서

경영학과10 김찬중

아주대 국제학부에서 갔다 온 캄보디아 문화체험에 대한 개인 결과물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고민들 많이 했다. 먼저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흔한 그저 그런 여행 일지를 쓰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캄보디아라는 국가에 대한 소개서를 쓰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 여행을 갔다 왔다는 자랑 같은 자신을 속이는 유적과 경관에 대한 과장 감상문을 쓰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 여행 일정 순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정보검색과 같은 소개를 하지 않는다. 또한 유적과 경관에 대해 서술하지 않는다. 한 가지, 문화체험에서 만나서 대화하거나 가까이 혹은 멀리서 바라본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보고하겠다. 문화체험, 문화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무엇인가다. 문화체험이란 사람체험이다. 내가 체험한 사람들이 나의 캄보디아 문화체험인 것이다. 본론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내가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겠다.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관찰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구걸하던 아이들. ②메콩 강변에 모여 오토바이를 타며 노는 젊은이들. ③메콩강 배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④아주대와 자매결연 한 대학교의 학생. ⑤친구가 된 투투 드라이버. ⑥씨엠립 현지 술집에서 만난 반정부 성향 사람들. 위 순서로 캄보디아의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서술하겠다.

①구걸하던 아이들.

대부분의 유적지에서 우리 단체는 구걸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캄보디아인들의 외모적 특징이 조그마한 얼굴과 큰 눈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은 너무나 귀여울뿐더러 어디서 배웠는지 불쌍한 표정으로 뺨히 올려다보는 눈망울로 여행객을 붙잡는다. 그들에게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 인류애를 저버리는 큰 죄악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 같잖은 지갑에서 나온 책임감 없는 가벼운 동정의 결과가 이들을 만들었다. 그들보다 조금 면상이 하얀 인간들의 자위용 푼돈들이 모여 나라의 기둥을 썩게 만든다.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어도 학생들이 없다고 한다. 캄보디아 독립기념탑으로 가는 나를 난처하게 했던 한 아이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 것일까. 'sir', 'please', 'money', 'I'm hungry'를 번갈아 말하며 100미터 이상 쫓아왔던 그 아이. 목숨을 구걸하듯 옷자락을 붙잡고, 손을 비비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며 길을 막아섰던 그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아이에 대한 동정보다 이 아이에게 푼돈을 쥐어준 앞서 다녀간 여행객들에게 말 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를 느꼈다.

"No. Go to school"을 몇 번 말했지만 의미 없는 말인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 아이는 다른 동양인 단체를 발견하고 나를 째려보곤 그곳으로 뛰어갔다. 아이의 째려보는 눈빛, 뛰어가던 뒷모습은 캄보디아 독립기념탑과 겹쳐지며 강렬하고도 우울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독립, 홀로 선다는 의미. 그 아이는 독립기념탑 아래서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처박고 있었다.

②메콩 강변에 모여 오토바이를 타며 노는 젊은이들.

그날 일정을 마친 이후 자유시간에 우리 조는 메콩 강변으로 문화체험을 하러 갔다. 해가 떠 있을 때의 캄보디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낮에 보았던 캄보디아인들의 느낌은 순박하고 착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해가 진 강변의 캄보디아인들의 눈빛에는 광기가 있어 보였다. 여기저기 말싸움 소리, 술 취한 사람의 괴성, 이성상대를 찾는 젊은 남녀, 서양인에게 시비를 거는 캄보디아 사람, 스마트폰을 보며 재미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곳은 수많은 현지인들이 즐기는 곳인 것 같았다. 특히 혈기왕성한 나이의 청년들이 요란하게 강변공원에 소음을 배출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청년들의 자신을 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수단은 오토바이며 젊은 여성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소득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들이지만 오토바이 론, 스마트폰 론 등 소액대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오토바이와 스마트 폰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다. 강변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탄 한 청년이 넘어지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오토바이만 붙잡고 운전자는 넘어지는 웃기는 상황을 것을 목격했다. 툭툭 털며 일어난 운전자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곤 소음과 함께 사라졌다. 평균 월급은 남자는 250달러 정도, 여자는 20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몇 천 달러의 오토바이, 800달러 정도의 스마트 폰은 사실상 구매하기 힘든 것이지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허영심이 반영되어 보이는 '오늘만 사는 소비'는 이들의 탓이 아니다. 한 푼 쓰지 않고 대대로 돈을 모은다면 그의 증손자 즈음 되어서야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래 따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낮은 소득이 문제인 것이다. 메콩강변에 모인 이들의 젊은이들의 눈빛 속에 부나방의 모습이 보였다. 미래를 저당 잡힌 채 현재를 불태우는 부나방의 모습에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한국도 청년층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분수에 맞는 소비를 이야기하는 중장년층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노후가 잘 준비되고 나서 한 말이길 빌 뿐이다.

③메콩강 배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못들은 것인지 사전 일정에 없는 메콩강 유람선을 탔었다. 유람선은 메콩강을 통통거리며 왕복 4킬로미터 정도를 운항했다. 메콩강은 탁했으며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강 주변 호텔들의 최상층에 있는 클럽과 술집에서 새어 나오는 현란한 조명이 여기저기서 반짝거렸다. 그러나 눈에 들어 온 것은 주변 경관이 아니었다. 어두운 강 표면위에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보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고기 잡이 어선이었다. 길고 좁은 조그마한 배 위에서 씬 없이 그물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아이 두 세 명과 어른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구성된 인원의 배는 위태로워 보였다. 각각의 배마다 한 개의 휴대용 후레쉬에 의지한 채 지나가는 배들을 피하며 그물질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점심에 먹었던 민물고기 구이요리가 이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조용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표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강을 즐기는 사람들이 탄 유람선들이 지나가

며 내뿜는 현란한 조명의 잔상들. 이 빛들 때문에 강과 위태롭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고기잡이 어선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된다. 특급 호텔들의 최상층 클럽에서 새어나오는 현란하게 춤추는 빛줄기들, 조명으로 분위기를 낸 유람선들 위에서 선상파티를 하고 있는 풍경. 자세히 들여다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탄 배가 반환점을 돌아 되돌아 갈 때 나는 또다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강둑에 수십 척의 쪽배가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그 배 위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쪽배 위에 만든 조그마한 텐트 같은 구조물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저녁 식사시간이었는지 정박된 쪽배마다 가족단위로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배위에는 학교를 다녀야 할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 조그마한 배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삶을 평가해서도, 그들의 행복도 가늠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박탈당한 교육 기회, 이들의 뻘히 보이는 심각한 위생에 대한 걱정스러운 생각은 들 수밖에 없었다. 화려한 주변과 대조되는, 아니 대조되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다. 기억 속 실루엣들이 과연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④아주대와 자매결연 한 대학교의 학생.

University of Puthisartha(UP)라는 학교에서 경제, 금융 비즈니스 관련 학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에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면 절반은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 부유층이라고 한다. 이 친구들한테 훈센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조심스럽다."였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했다. 수도 프놈펜의 사립 대학교에 다닐 만한 여유를 가진 자의 조심성이 느껴졌다. 캄보디아인들의 중학교 진학률은 심각하다고 한다. 먹고살기 힘든 이 국가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고 한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대학교를 졸업 할 때 까지 10년 이상을 돈을 벌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특권 계층인 것이다. 당연히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훈센을 물어본 것은 바보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다. 또 한 친구는 프놈펜에서는 정치적인 대화는 타인과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정치적 대화를 꺼리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국은 정치주제로 대화가 흘러가면 서로 할 말이 많아서 탈이 나는 경우가 생겨 피하는 것이지만 이곳은 다른 의도로 숨기는 분위기였다. 그것은 30년이 넘는 훈센 총리의 독재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훈센 이전의 내전시기. 그 이전의 공산 혁명시기. 그 이전의 친미 정권. 또 그 이전의 프랑스 식민지 시기.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란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것처럼 보였다.

⑤친구가 된 툭툭 드라이버.

시엠립으로 도착한 날 밤 자유시간에 룸메이트와 호텔방에서 앙코르 맥주를 마시며 계속해서 근처에 위치한 '펍 스트리트'에 가서 놀자고 회유했지만 피곤하다며 거부해 낙심했었다. 배도 좀 고파 과자나 좀 사러 호텔 옆 슈퍼에 가려고 나왔다. 가게 앞에 캄보디아 운송수단인 툭툭이 몇몇 있었다. 슈퍼 마침 문을 닫아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옆에 있던 툭툭 운전사 한명이 나한테 계속 말을 걸어왔다. 이야기를 하다가 옆 조그마한 이동식 음료가판대가 있어 맥주를 권하고 함께 목을 축이며 대화를 하니 빠르게 친해졌다. 32살에 아이 둘이나 있

는 기혼 운전사와 어느새 서로 부인 욕과 여자 친구 욕을 떨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친구가 된 우리는 캔 맥주로는 뭔가 부족해 내가 근처에 술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 친구는 신나서 자기가 잘 아는 현지인들이 가는 좋은 술집으로 특특을 몰았다. 내가 사겠다고 하니 15\$에 둘이 퍼마실 수 있다고 했다. 15\$에 나를 호텔로 다시 데려다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그 친구한테 돈을 15\$를 맡기고 신나게 마시며 많은 대화를 했다. 그는 20살부터 특특 운전을 시작한 베테랑 운전수다. 첫째가 11살 딸, 둘째가 5살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너무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진심 가득한 표정으로 푸념하는 것이 너무 웃겼다. 캄보디아가 모계사회라는 것을 특특 운전수의 표정과 표현으로 실감나게 다가왔다. 힘들게 일해서 집에 가면 해야 할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특특 운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말에서 남녀의 역학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친구가 과장 섞어가며 죽는 시늉을 하면서도 자식들이 사랑스러워서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며 세상 어느 나라든 자식들 때문에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 것은 큰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계속해서 피하고 잘 있다고만 말 할 뿐 학교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크메르어를 읽고 쓸 줄은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인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타까웠다. 그 친구는 하루에 8\$만 벌 수 있다면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8\$만 벌면 충분한데 굳이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 친구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도시 하층 가정의 딸은 공장 노동자, 아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먹고사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들의 미래에 노동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⑥ 씨엠립 현지 술집에서 만난 반정부 성향 사람들.

친구가 된 특특 운전수와 갔던 술집에서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 가게가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주목되고 있었다. 특특 운전수와 대화를 하다가 훈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도인 프놈펜에서 들었던 것과 정 반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훈센이 순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훈센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과장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의심을 하자 그 친구가 종업원과 주변 사람들을 불러 훈센과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가 씬 없이 통역을 해주어서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자 하나같이 정부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었다. 영어를 섞어가며 훈센과 여당(CPP)에 대한 분노와 프놈펜 위주의 정책을 비난했다. 어느새 술집이 대정부 성토대회가 열린 것처럼 변했다. 자신들의 월수입을 말하면서 빈부격차와 자신의 공장의 처우개선에 대한 주장을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수도 프놈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씨엠립은 예전부터 반정부 민심이 존재 했다고 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캄보디아의 민심 자체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중되는 프놈펜과 기타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훈센의 CCP당이 야당 세력이 발전할 싹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를 것이기 때문에 훈센의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캄보디아의 미래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국민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러나 낮은 교육수준, 미성숙한 정치의식은 이들이 해결해야 할 큰 산일 것이다. 캄보디아에 또다시 격동의 시대가 오고 있는 듯 보인다.